

광산구 우산동, 고독사 방지 마을돌봄

1인가구 49%...고독사 매년 5건 이상 안부·장례 처리 '엔딩서포트' 진행

광주 광산구 우산동이 혼자 생활하는 주민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마을 돌봄 실현에 나서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우산동은 광주시가 주관하는 '2023년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엔딩서포트' 사업을 진행했다.

엔딩서포트는 우산동과 우산동 지사협이 주축이 돼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세대의 안부를 살피고, 유류품 정리, 사망 신고 등 사망 후 장례 처리 문제를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우산동의 특징을 고려해 추진됐다. 광산구 21개 동 평균 1인 가구 비율은 37%인데, 우산동의 1인 가구 비율은 49%에 이른다. 동 인구 절반가량이 1인 가구인 셈인데, 고독사도 매년 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엔딩서포트' 사업은 공공영역 돌봄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고독사를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마을의 장례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하는 초고령화 시대 '돌봄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중합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우리동네의원, 마을건강센터, 하남성삼병원, 만평장례식장 등 복지시설, 의

료기관, 장사시설 업체 등도 사업에 힘을 보탤다.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무연고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집중관리 세대와 밀착 돌봄이 필요한 세대 등 대상자를 발굴한 우산동은 그동안 150세대의 안부를 살피고, 무연고 주민 10세대의 병원비와 장제비, 유류품 정리 등을 지원했다.

우산동은 올해 사업 성과를 토대로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내년에도 '엔딩서포트'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오덕 우산동 지사협 위원장은 "우산동은 인구 절반이 1인 가구이고,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과 돌봄 이웃이 많다"며 "생전복지는 물론 사후 복지까지 책임지는 마을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11일 광산구청 운상원홀에서 열린 '광산자치아고라'에 참석한 주민 등 100여명이 손 헌수막을 펼쳐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산구, '걷고 머물고 싶은 마을길' 주민 공론장

지역문제 해결 '광산자치아고라' 주민·자치위원·전문가 100여명 참여

광주 광산구가 '걷고 싶은 마을길'을 주제로 주민 공론장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지난 11일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주민이 제안한 의제를 공론화해 주민 주도로 해결 방안을 찾는 '광산자치아고라'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광산자치아고라'는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잇는 '걷고 머물고 싶은 마을길'을 의제로 내걸었다.

앞서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올해 21개 동 주민총회 등에서 나온 의제를 동네 오솔길, 공원 산책로, 꽃이 있는 골목길, 방음림 산책로, 안전한 보행로 등으로 분류하고 작은 공론장인 '사이42광산'을 진행했으며, '걷고 머물고 싶은 마을길'을 광산자치아고라의 대표 의제로 정했다.

이번 모임에선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생태길30' 조성사업, 동별 '걷고 싶은 길 가꾸기' 사업 계획과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이번 의제 실행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광산구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제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이 속의하고 최적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론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진행될 공론장을 통해 마련한 해결 방안은 정책 제안서로 작성돼 광산구에 제출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제안한 의제를 주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장이 더 많이 자주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임영일 이사장 임명

광주 광산구는 "산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영일(사진) 전 동구부구청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며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임 이사장은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임 이사장은 "최근 공단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흐트러진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노조와도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로 조속히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겠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단으로 재탄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자로 임기를 시작한 임 이사장은 취임식 대신 폐기물 수집현장과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등 현장 위주의 경영과 조직화합에 중점을 둔 업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 지방 우수정책 최우수상

민주당 주관,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정책 1급 포상

박병규(사진) 광산구청장이 민선 8기 대표 복지 정책인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지역 기반 건강관리)'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정원오)가 주관한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서비스를 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프지 않고 활력 넘치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도록 토대를 마련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민선 8기 박병규 구청장 취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민관 상생협력 기반 의료·돌봄 연계 기반을 확립,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정책 등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망을 구현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는 시민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100세 시대 돌봄의 새로운 설계도"라면서 "시민 삶의 향상, 건강 증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광산구에서부터 완성 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수상은 '건강한 광산 시민의 삶'을 구호로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와 돌봄, 주거 등 삶 전반에 걸친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지방정부 운영과 주민 주권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시민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정책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은 '건강한 광산 시민의 삶'을 구호로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와 돌봄, 주거 등 삶 전반에 걸친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930억 과다

국강현 구의원 '영성한 예산편성에 재정운영 효율성 떨어져'

광주 광산구가 매년 영성한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총세입에서 총지출과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을 제대로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은 최근 열린 광산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경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해 지난해에는 93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이는 전체 편성예산의 10% 규모"라면서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부터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미편성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 편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결국 70억원 가량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 편입되는 바람에 예산이 적체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초과세입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과태료 등의 세입을 거의 모든 부서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특히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한 증지수입 세입예산과 실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납된 증지수입 금액의 큰 편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순 추계 방식의 세입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올해에는 최근 2년간 결산자료를 근거로 세입을 적극 추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9295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광산구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예비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가 제출받은 광산구 내년도 본예산은 일반

회계 9194억원, 특별회계 101억원 등 총 929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540억원(6.17%) 늘어난 예산안이다.

강한솔 광산구의회 예결위원장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체적소의 예산 분배가 이뤄졌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